

구분	강북영광교회 주일강단
날짜	2024년 10월 6일
제목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 높인 세례 요한
본문	요한복음 1:19-28

녹취

• 서론

참된 지식, 최고 지식 진짜가 무엇인가? 최고되는 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김준곤 목사님 CCC 총재, 대학사역하신 목사님 한국에 참 거목 목사님이시다. 대학 복음화, 오직 복음 증거하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다락방 목회대학원에 특강을 오셨다. 그때 첫인상이 실물로 저 처음 봤다. 실물로 사진이나 책자에 많이 봤지만 실물로 처음 봤는데 굉장히 머리가 하얗고 얼굴이 편안하시고 온화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으시다.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특강을 하시는데 서서 칠판에 분필로 쓰기도 하고 서서 강의를 못하시고 의자에 앉으셔서 마이크도 고정해 놓고 지긋히 강의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톤이 지긋히 표현도 그렇지만 말씀도 지긋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주의 종 목사님이시다 그렇게 여겨졌다. 뭐라고 강의를 했냐면 세상에는 전부 100% 모든 것 가짜다. 진실, 진리가 없다. 더군다나 진리가 아니다. 전부 다 100% 거짓이고 가짜다. 인기 있는 책도 있고 베스트셀러, 그 책이 베스트셀러인지 모르지만 진짜 진리는 아니다. 가짜다. 인터넷 또 세상의 모든 것 사람들, 인기, 여론, 인기 연예인, 인기 정치인, 인기 교수 보면 별거 없다. 거의 100% 전부 가짜다. 특히 인기 있는 것, 한때 인기 있고 연예인들, 또 정치가 누구 인기를 끌잖아요? 그 인기도

가짜다. 뭐만 진짜 진리냐?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즉 복음만이, 복음 되신 그리스도만이 오직 진리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렇게 강의를 하셨다. 당신들은 강의 듣는 다락방 목사님들 말이다. 당신들은 오직 하나만 하세요. 그게 뭐냐? 오직이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전도 하나만 오직 전도만 하라. 강의 주된 내용이고 결론이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 또 복음을 깨닫고 은혜받을수록 복음을 들을수록 정말 이 결론이 나와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결론에 이르러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 결론이 나고 오직 이 되어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직 그리스도, 빌 3:6-8 말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오직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참된 지식이다. 또 행 4:12 말씀에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뿐이다. 이 답과 결론이 시간이 갈수록 나와 된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속임수가 있다. 그게 되지 않도록 그 결론과 답이 나지 않도록 사탄이 속인다. 또 우리를 넘어뜨린다. 모든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가짜, 실체는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가장 좋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꼬신다. 유혹한다. 이게 진짜 좋아, 그리고 이게 최어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 즉 마귀가 예수님까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시험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보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준다. 그다음에 딱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속인다. 천하만국의 영광 그거 진짜 영광 아니다. 오만 거 때만 거 좋은 거 그거 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진짜를 빼앗아가

려고 한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도록, 오직 복음이 되지 않도록.

김준곤 박사님 특강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평생에 없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한 번 들어봐 쓴데 그 시간 저도 은혜받고 모든 목사님, 다락방의 내로라하는 목사님들 그때는 류목사님까지 참석하고 상임위원들 류 목사님 강의 아니면 마치면 다 간다. 다 남아서 강의 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때 이 분은 위대한 하나님이 세운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 할 오직 전도만 하라는 위대한 주의 종이다 그렇게 느꼈고 은혜 받았다.

사탄의 전략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지 마라. 내가 대신에 그 영광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그 영광 받을 자다 그렇게 내가 드러나라, 내가 드러나라 창세기 3장 사탄이 속이는 것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 하는 증인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잘 안 된다. 우리 자존심 조금만 건들리면 폭발한다. 또 남이나 나를 조금 자존심 굽는 소리 했는데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했는데 들려 들려서 내 귀에, 우리 귀에 혹은 들린다. 그러면 폭발한다. 두고 보자. 그만큼 우리가 낮아지고 내가 조금 그리스도보다 낮아지고 천해지고 혹은 내가 손해 보게 된다 못 참는다.

• 본론

1.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숨기지 않고 말한 것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다. 세례 요한은 드러내놓고 숨기지 않고 말한 게 있다. 이게 사탄에게

지지 않는 세례 요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1) 내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19)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그다음에 너는 그러면 선지자냐?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 엘리야도 아니라. 나는 아니라고 했다. 세례 요한에게 왜 이 질문을 했고 세례 요한은 드러내놓고 그 즉시 주저하지 않고 나는 아니라고 했을까요? 불신앙의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오실 그리스도 안내하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아멘하고 그 정도로 역사 일어나고 말하자면 인기가 치솟은 것이다. 역사 일어나면 누가 긴장하는가? 정치인들, 그리고 진짜가 아닌 가짜들이 긴장한다. 저 놈이 인기 얻고 다음 대통령, 국회의원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된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 보내고 레위인도 보내고 그래서 물어봤다. 내가 그리스도냐? 워낙 역사 일어나니까.

2) 세례 요한의 대답

3)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이때 세례 요한이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다만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주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곧게 하라고 다만 외치는 자, 안내하는 자다. 여러분 소리 치면 그다음 소리 어떻게 되는가? 물론 메아리로 소리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아리가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아리로 이렇게 하는 것 있지만 사실은 소리 내면

그다음 소리 나지 않는다. 소리로 끝난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영광을 받지 않았다. 모든 인기와 모든 사람의 몰려들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세례 요한이 아예 드러내놓고 주저 없이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다.

세례 요한 통하여 회개의 세례와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 놀라고 흥분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오셨는 거 아닌가?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흥분했다. 그리고 확인차 한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내어 질문한 것이다.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엘리야도 아니라.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 다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그리스도 오심을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그 길을 안내하고 곧게 하는 소리라. 세례 요한이 드러내놓고 숨기지 않고 고백할 때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사탄이 틈탈 틈도 주지 않고 그리스도께 돌아갈 영광과 모든 것을 그 일순간도 틈을 주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영광 받을 분 오직 관심과 모든 것의 모든 초점을 받을 분은 오직 그리스도다.

아무리 뛰어난 위대한 인간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창 3:15 주인공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될 수 없다. 원죄를 타고난 마귀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똑같이 멸망받을 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는 문제 해결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이지 그리스도 아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 아무리 업적을 남긴 인간 영웅이라고 하죠. 아니다. 죄인이고 마귀 자녀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정말 중요한 고백을 했다. 오실 그리스도를 최초로 증거 한, 그 길을 예비한 정말 위대한 전도자가 맞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데에 자기는 형편없이 낮아지고 그다음 고백한다. 나는 그의 신들메을 풀기 즉 신 끈, 운동화 끈, 구두끈 있잖아요? 나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

발 끈 풀기도 못할 미약한 자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오직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렇게 나타낸 것이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그리스도 증인되는 전도자의 자세다. 역사 일어나면 간증하고 여기저기 불러가서 포럼하고 하면 큰일 난다. 역사 일어났을 때 응답 주셨을 때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목사님들이나 다락방에는 증거 있는 분들이 전도자들이 있다. 중직자들도 있다. 집중훈련, 강단에 세울 때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교회 자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다고 증거 많이 나타났다고 큰일 난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을 알리는 외치는 자 마지막 선지자로 사실은 세례 요한 그의 사명 다한 것이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서 역을하게도 세례 요한 헤롯왕의 칼에 순교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세상의 여자가 낳은 남자 중에, 여자가 낳은 남자 중에 남자 여자 있는데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남자 중에는 가장 위대한 자라고 했다. 그렇게 예수님 칭찬하신 이유도 다르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그렇게 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인 마지막 선지자 이 고백 앞에 사탄은 여지없이 박살 났다.

제가 오늘 세례 요한을 띄우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했는가? 오직 그리스도만 높인다.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 한다. 다락방에 참 제가 감사한 점이 다락방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감사한 점이 있다. 오직 복음을 강조한다.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한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실수를 많이 해서 역사 일어나니까 자랑하느라고 그러는 거는 좀 있다. 그러나 다락방 모든 전도자들, 목사님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우리 다락방 진짜 복음 진짜 답 난 결론난 전도자, 중직자들 보니까 오직 그

리스도, 오직 복음이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런 진짜 참된 전도자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을 우리가 여지없이 박살내야겠다. 언제요?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이 부분만 실수하지 않으면 되는데 자꾸 속는다.

2. 내 뒤에 오시는 그 이가 그리스도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 이가 바로 그리스도 시다.

1) 지구상 최초로 그리스도를 선포한 위대한 자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에 증거 한 것처럼 하나님 되시며 말씀이 되시며 태초부터 계셨으며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빛 되시며 참 빛이신 성육신 하여 오신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세례 요한이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 했다.

참 왕 되시며 참 제사장이시며 참 선지자이신 그 그리스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요한이 어찌하여 내게 오시나이까? 내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나는 당신의 신들메 풀지 못하는 연약한 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오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신 것이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를 높이지 않았다. 내가 그리스도께 세례 주었다 자랑하지도 않았다. 오직 그리스도를 높였다. 그리고 하는 메시지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물 붓듯 하여 성령의 충만함 주실 것이다. 성령이 마치 비둘기같이 그리스도 되신 그분에게 하나님은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머물러 있으면 그 이가 그리스도라고 했다. 마침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

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보좌의 능력 되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 세례 요한이 또 가리킨다. 주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여 머물러 있는 자가 그리스도시니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또 요 1:29 또 다른 공관복음서에도 나온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또 빈들로 산으로 다니시며 복음 전하실 때 마침 세례 요한이 있는 현장에 예수님께서도 나타나셨다. 이러할 때 세례 요한이 그 즉시 주저하지 않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되신 그리스도라고 가리켰다.

또 요한복음 1장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한 마지막에 증거 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증거 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린 것이다.

2)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는 고백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여러분, 성도님,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렇게 고백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9월까지 너무 여름 무더위다가 9월 말 즈음에 바로 지금까지 완전 가을 날씨가 되어 오히려 서늘하다. 새벽기도 올 때 서늘하다. 제가 지금 여름 양복 입었는데 낮에는 괜찮다. 그런데 새벽에는 추웠다. 지금 운동하는데 너무 좋다. 저도 가끔씩 농촌진흥청 앞으로 맨발 걷기도 하지만 거리로 나가서 호흡하면서 운동한다. 지금 보면 농촌진흥청 주위에 벼가 익어서 벼가 고개 숙이고 있다. 설교하는데 많이 써먹는다. 우리 아버님도 설교하는데 제가 아버님 설교 들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들은 지 모른다. 겸손이 아니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겸손하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은혜받으면 받을수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언약 정말 이 고백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이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오직 영광을 그리스도께,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고.

반대로 이 사탄은 이것을 가로채도록 우리에게 속인다.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해라, 내가 가로채 니 거 되도록 해라. 그러면서 속이면서 마지막에 멸망시키게 한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간단히 사탄의 미혹에 승리하셨다. 천하 영광 다 보여주면서 사실 천하 영광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 천하 영광 다 보여준다. 사탄이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고 했다. 예배를 빼앗아간다. 영광을 가로채도록 또 교만하도록 영광 받도록 한다. 예수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즉시 승리했다. 우리도 사탄에게 절대로 속지 않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 복음을 깨달은 참된 전도자 -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을 그리스도께! (바울)

복음을 최고로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된 고백한 전도자가 있다.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오직 그리스도께,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났다. 그 전도자 누구인가? 바울이다. 빌 1:20-21 나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니.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되면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오직 그리스도다 고백했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 나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했다.

롬 14:8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주만 드러나게 하겠다. 정말 복음에 결론 나고 결론난 답 난 전도자의 고백이다. 빌 3:7-8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고 최고 단어다. 이 그리스도 복음 깨닫기 전에 답 나기 전에는 바울도 자랑했다. 자기의 지식과 배경과 모든 학위, 모든 집안들 다 자랑했다. 베냐민 지파 중 베냐민이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다. 자랑할게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다. 배경 따지자면.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깨닫고 복음에 결론 나보니 그게 다 해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는데 해가 된다. 알고 보니까 자랑하던 모든 것 배설물이다. 오직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다. 이 결론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제자, 또 바울과 바울을 통해 일어난 제자들의 고백만이 아니고 지금 세월이 흘러 초대교회 지나고 중세교회 지나고 종교개혁시대 지나고 근세교회, 현대 교회에 이르러서도 이 진리는 똑같다.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일어나는데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또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배교가 일어나고 내가 그리스도라 사람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 영적 혼란시대, 재앙시대 반드시 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다. 제일 사탄이 전략을 펴서 넘어뜨리기 쉬운 게 역사 일어나면 속아 넘어간다. 얼마나 역사 일어나길래 나는 그리스도라는 자가 곳곳에 일어나서 하나님 자녀들을 택한 자녀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린다고 했다. 속지 마라고 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 나고 결론 나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축복의 모든 주의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결론

성경과 교회사에 환란, 핍박, 어려울 때 고난 받을 때 오히려 승리했다. 그때에 그리스도로 답 난자들 순교할지언정 다 승리했다.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매 맞음, 손해, 단절, 감옥 가고 심지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능욕 받는 자 자처하고 오히려 기뻐했다. 그렇게 핍박하고 매를 때리고 위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능욕 받는 것, 내가 핍박받는 것 자처하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서 또 현장 가서는 핍박, 호 나란 그대로 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사도들 큰 권능으로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큰 권능으로 증거 했다. 그런데 잘 살고 편안하고 교권은 힘 생기고 교회는 축복받아서 돈 넘치고 313년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었다. 얼마나 좋은가? 250년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전도자들과 교회들이 핍박받아 사자 밥 되고 불에 태워지고 관 속에 집어넣어서 관을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그렇게 순교하고 핍박했는데 한 사람도 진짜 복음 가진 자는 손들지 않았다. 오히려 313년 기독교 국교라고 하고나서부터 교회가 성장하고 축복받고 교권이 생기고 왕을 이길 정도로 교권이 섰다. 교황 교권이 더 섰다. 그때부터 복음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발전은 다 했다. 교회도 발전하고 신학도 계속 발전해서 논쟁하고 신학도 발전이 일어나고 다 좋았는데 그때부터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 안 된 것이다.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드디어 복음 없어도 돼, 다른 진리가 나왔다. 교회 안에서 나와서 물론 이단으로 정죄받았지만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별별 이단들이 다 나왔다.

지금 이 시대 어떤가? 똑같다.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재앙시대, 영적문제 시대 왔다. 오직 그리스도하면 잘못하면

잡아간다. 우리나라에도 국회 법이 올라가 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기독교가 제일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된다. 그래도 복음 가진 자는 오직 그리스도 증인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왔다. 한국 교회 이렇게 축복받아서 영향 있다고 하는데 영향 전혀 못 주고 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 각오해야겠다. 다른 것 말고 복잡한 것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께, 오직 하나님께. 혹시 돌릴 영광 있거든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 돌려라. 오히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제자, 전도제자 다 되시기를 사탄의 망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릴 참 제자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옵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 되신 오직 그리스도만 모든 구원과 영광과 찬양과 고백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모든 램넌트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에 증인 되어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 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 다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이 땅에 우리 대구, 칠곡에, 선교하는 프랑스에, 선교하는 유럽 53개 나라 현장 위에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